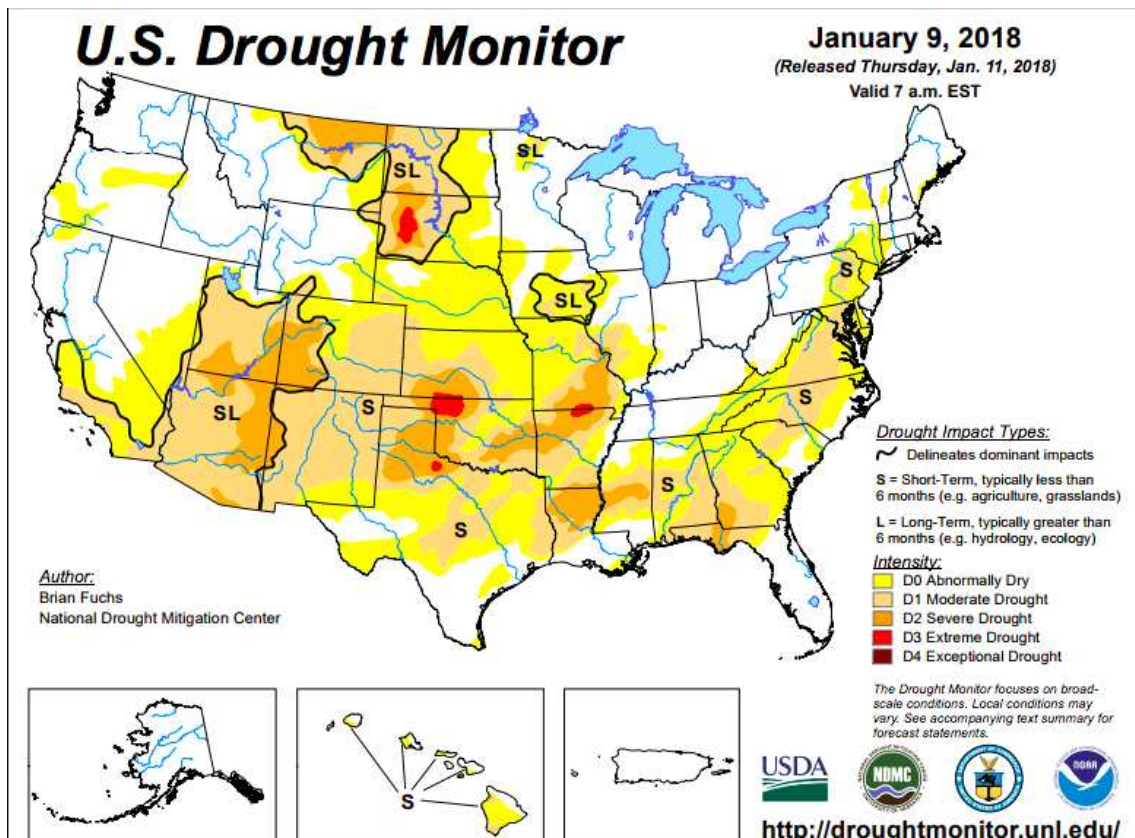


1월 1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3)

□ 미국 기후 현황(1/7~1/13)

캘리포니아에서는 1월 8일과 9일 사이에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졌다. Moncecito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주택 파손 등의 피해와 더불어 20명 이상의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가운데 특히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토사유출이 심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 Nina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던 태평양 연안 북서부와 로키산맥 북부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고, 고산 지역의 적설량도 지난 주에 비해 증가했다. 현재 씨에라 네바다 산맥의 적설량은 3인치를 조금 넘기는 수준인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평균에 비해 1/10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 농업 현황 요약(1/8~1/14)

텍사스 동부에서부터 메인주에 이르는 동부 해안 지역 대부분에서는 최소 1~2인치 이상의 비 또는 눈이 내렸다.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도 최소 4인치가 넘는 비가 내렸다. 하지만, 중부 평원 일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로키산맥 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4°F 이상 높았다. 뉴 잉글랜드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맞는 영하권의 날씨를 보였지만, 그밖의 동부 지역 대부분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4~5°F 정도 높았다.

□ 세계 기후 현황(1/7~1/13)

■ 유럽: 주 초반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10~4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지난 가을부터 이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던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고, 최근 파종을 마친 보리 등에도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남동부, 그리스 등에서도 1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폴란드 서부 및 주변지역에도 2~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유럽 대륙 전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7°C 이상 높아서 농지를 덮어주어 추위로부터 작물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눈은 대부분 녹아내렸다.

■ 구소련(서부): 2018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동아시아: 2018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호주: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다 남부의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5~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동부 일대에서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다. 주요 여름작물 재배지의 평균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에서 40°C 초반 내외를 오르내렸다. 빅토리아 북부, 남호주, 서호주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 아르헨티나: Parana 계곡 일대의 Buenos Aires 북부, Entre Rio, Santa Fe 남부 등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La Pampa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C까지 오르기도 했다. Buenos Aires 남부에서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북부 일대의 면화 등 여름작물 재배지역에서는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1월 11일 기준 옥수수 파종률은 82%를 기록했고, 대두의 파종률은 92%를 기록했으며, 밀의 수확률은 97%를 기록했다.

■ 브라질: 북부와 중부의 Mato Grosso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Sao Paulo 서부에서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그밖의 지역에서도 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월 8일 기준 대두와 옥수수 재배지의 약 85% filling stage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Mato Grosso에서는 1월 12일에 대두 수확작업이 시작되었다.